



총무원은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개혁신사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종단발전을 위한 제2개혁신사 새신자 기자 air501@bulgyo.com

'94개혁신정신 계승해 제2개혁신사 선포

종단개혁 불사 20주년 기념식 ... '4·10 승려대회' 기념일 맞춰 열려

“이 모든 사부대중이 오늘, 94년 종단개혁 불사 정신을 계승해 다시 한번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1994년 종단개혁 불사 20주년을 맞아 당시 불의에 맞서 정법을 구현했던 대종이 한 자리에 모여 종단 발전을 위한 제2의 개혁신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 부의장 명선스님을 비롯해 덕총림 방장 설정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웅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개혁신사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1994년 개혁신사의 분수령이 됐

던 4·10 승려대회 기념일에 맞춰 열린 이날 사부대중은 △정법종단 △정정교단 △불교자주화 △종단운영 민주화 △불교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개혁의 5대 지표로 삼고 정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회의의 부의장 명선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모든 출가수행자는 다시금 대오정성(大悟正性) 생사해탈(生死解脫)의 신심을 드높여야 한다”면서 “중생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바른 참선법(參禪法)을 세계화하는데 종단개혁의 역량을 다할지니라”고 당부했다. 원로회의의 의장 밀운스님은 ‘무원근(無遠近)’이라는 유시를 내렸다.

이날 기념식은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94년 개혁신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범등스님의 헌화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봉헌 △개혁신사 동영상 ‘종단개혁 이렇게 이루어졌다’ 상영 △종정예하 교시 △원로회의의 의장 유시 △총무원장 기념사 △축사 △동영상 축하메시지 △축시 △개혁신정신 계승 실천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94년 개혁신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범등스님은 봉헌사를 통해 “94년 개혁신사를 통해 우리는 평화와 개혁이라는 한 시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종단개혁의 정신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자 했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념사에서 “다가올 종단의 새로운 20년을 밝게 열기 위해서도 개혁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지혜와

원력을 모아 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도 축사를 통해 “94년 개혁신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불조혜명을 잇는 길이고, 한국불교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또한 94년 개혁신사에서 주역인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축시 ‘크게 울린 종(鐘)’을 발표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혁신사 기념사진전 ‘20년의 울림! 개혁신사’를 열었다. 또 같은 날 오후2시부터 국제회의장에서 ‘94년 종단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원력을 모아 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중앙종회의장 함적스님도 축사를 통해 “94년 개혁신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불조혜명을 잇는 길이고, 한국불교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또한 94년 개혁신사에서 주역인 전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축시 ‘크게 울린 종(鐘)’을 발표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혁신사 기념사진전 ‘20년의 울림! 개혁신사’를 열었다. 또 같은 날 오후2시부터 국제회의장에서 ‘94년 종단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16일 광화문 ‘미륵사지탑’ 형상화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전국 각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연등회’ 봉축행사 본격 시동

불교계 최대 축제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봉축행사가 16일 오후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 봉축표어가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인 만큼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사회 곳곳에 전하는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9일 서울 북촌 동양문화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주요 봉축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봉축표어에도 의미가 잘 담겨 있듯 이웃과 함께하는 범불교적인 문화축제가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연등회의 상징이 될 탑등이 눈에 띈다. 광화문 광장을 밝힐 ‘미륵사지 탑등’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좌대를 포함해 높이가 20m에 이른다. 미륵사지석탑의 70% 크기로 조성한 이 탑등은 회화적인 면을 더해 전통 한지등이 갖는 화려하고 은은한 맛을 살렸으며, 40호 크기의 한지 500여 장으로 장엄했다. 미륵사지석탑은 현존하는 최고·최대의 석탑으로 639년 백제 무왕의 왕후가 발원해 건립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간 미륵사지석탑의 원만한 복원을 기원하고, 문화재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23일부터 5월7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에 석가탑등과 연꽃소녀등을 설치하는 한편, 서울 중

로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에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을 설치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와 더불어 봉축 기간 동안 서울 인사동 쌈지길, 시청광장 일원에서 ‘이웃과 나누는 희망의 등’ 캠페인을 전개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분지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사찰에서 국내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매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이어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플트플렉 노동자 초청 위문법회를 연다.

박상희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은 “연등회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만나 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신임 원로의원 원경스님 선출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의결...사무처장에 광전스님 임명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펄떡 만기사 주지 원경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의장 밀운스님)는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원로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입적한 무진장 대종사의 후임 원로의원에 원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3면

원로의장 밀운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무진장스님의 입적으로 공석

인 된 자리에 중앙종회에서 원경스님을 추천했다”면서 “더불어 지난 8년 동안 수고를 해 준 원로회의의 사무처장 덕문스님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에 광전스님이 추천됐으니 잘 살펴보고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전 회의록 낭독, 개혁신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 집행계획과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 계획 보고의 건 등 중무보고와 원로의원 선출 등 안건을 논



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원로회의의 사무처장 덕문스님의 후임으로 전 총무원 총무국장 광전스님을 임명했다.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광전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사미계, 1994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교육원 연수국장, 총무원 사서국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곡성 성륜사 주지를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서울 9호선 ‘봉은사역’ 역명 사실상 확정 ‘시보’ 고시만 남겨둬

서울 지하철 9호선 929역 역명이 ‘봉은사역’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9호선 929역 역명으로 ‘봉은사(코엑스)역’과 ‘코엑스(봉은사)역’ 등을 후보로 놓고 논의한 결과 ‘봉은사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최종 방침 결정과 서울시보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

렴과정을 거쳐 강남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만큼 이번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은사는 “지하철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 형

평성, 이용시민의 편의성, 관광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해 제정해야 한다”며 “봉은사로, 봉은교,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봉은여자공립 등 지하철 929역 인근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봉은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929역은 지역 대표 명칭

을 살린 봉은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역명 제정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강남구청이 지난 1월 지하철 9호선 929역에 대한 선호 역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봉은사역 58%, 코엑스역 35%로 각각 나타났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 화쟁위원회 ‘대한민국 아단법석’ 예고 4면 ■ 공생회 캄보디아·라오스 학교 기공식 8면

社告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행 기념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매 철야정진**

불교신문은 지난 1960년 1월1일 창간하여 불교계 정상의 언론 매체로서 54년 동안 불법홍포와 불교의 권익보호를 선도해왔습니다. 불교신문이 창간 54주년을 올해 **‘불교계 최초로 지령3000호(4월9일)’**를 발행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고 역사성과 전통을 알리는 의미에서 3000매 철야정진 사업을 전개합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3000매 철야정진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기고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모연된 모연금을 국내·외 난치병 환아들에게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진행일시 : 2014. 4. 19. 토 ~ 4. 20. 일

■ 장 소 : 조계사와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 동참문의 : 02)723-5101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 대한불교조계종총회복지재단 · 불교광복



불안과 분노, 화를 잠재우고 행복한 뇌 지도를 그리는 마음 연습

“타고난 유전자를 바꾸려면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라!”

국내 뇌심리학의 선구자이자 영국국제인명센터IBC가 선정한 100대 교육자, 세계인명사전에 9년 연속 등재된 장현갑 전 서울대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한 두뇌 만드는 법!

뇌 심리학으로 밝혀낸 행복한 마음과 뇌의 비밀

생각 정원

장현갑 지음



허버트 외의 보고서
명상이
뇌 지도를
바꾼다

출간기념 강연회 일시 4월 19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시청역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신청 이메일(sunny@munhak.com) 문의사항 031-955-2643, 2658